

## 2008년 과학기술계 신년인사회

# 과학기술계 새 각오 다졌다

글 | 이정호 \_ 동아사이언스 기자

**한** 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주최로 지난 1월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2008년에 우리 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과학기술인의 열정이 풍요로운 미래 열어

이날 채영복 과총 회장은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아 과학기술인 모두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라는 말로 시작한 인사말에서 “돌이켜 보면 과학기술인들은 지난 5년간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한국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계 7위에 올라선 것은 과학기술인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채 회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열망은 ‘경제 살리기’에

모아져 있다”며 “과학기술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정부 정책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축사에 나선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룬 성장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는 두뇌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과학기술인 선배들과 여기 모인 분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참여 정부는 그간 나름대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했다. 그는 “연구개발 투



개회인사를 하는 채영복 과총 회장



2008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이 위성 발사 이벤트를 위해 버튼을 누르고 있다. 왼쪽부터 서상기 의원, 김태환 의원, 홍창선 의원, 김우식 부총리, 채영복 과총 회장, 우주인 고 산·이소연씨



김우식 부총리는 “새로운 각오와 강한 의지로 우리 나라를 21세기 희망찬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드는 선행이 되자”고 말했다.

지를 확대하고 ‘국가 R&D 사업 중장기 토털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전 주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체제를 정성껏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과학기술연금 제도 마련, 과학영재 육성체계 구축, 초전도핵융합로(KSTAR) 완성, 우주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이제 선두권 국가의 대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풍요로운 미래는 과학기술인의 땀과 열정을 필요로 한다”며 “새로운 각오와 강한 의지로 우리 나라를 21세기 희망찬 과학기술강국으로 만드는 선행이 되자”고 말했다.

### 우주인 비롯해 과학기술계 인사 700여명 참석

한편 이날 인사회에서는 과학기술부의 위상 변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과학기술계는 “복잡한 교육 현안에 묻혀 과기부의 고유 기능이 실종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의 조정권한을 갖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위상 변화도 불가피해 연간 11조원 규모의 R&D 관리에도 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우식 부총리는 이날 자리에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뿌리 내려가는 연구시스템과 관리체제가 흐트러져선 안 된다”며 “정권의 변화나 정치적 관점으로 연구가 중단되거나 개발정책이 지연되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많은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경제 회복을 내



행사장 전경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는 주요인사들

세우는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과학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솔직히 걱정스럽다”고 반응했다.

신년인사회에는 조완규 과총 명예회장, 김태환 의원, 서상기 의원, 홍창선 의원, 한국 최초 우주인 고 산·이소연 씨를 비롯해 과학기술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과학기술로 열어가자 위대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영상물이 상영되고 김우식 부총리와 채 과총 회장 등이 모니터 위에서 위성을 발사하는 이벤트를 열어 분위기를 한껏 돋우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조완규 과총 명예회장의 건배 제의와 소프라노 한양대 박정일 교수가 부른 ‘아침의 노래’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새해 다짐을 나눴다. 